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2호 [무게 제26096호] 주제 107(2018)년 8월 10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중산돌격운동에 총매진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표를 기어이 점령하자

인민경제 중요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결의모임 진행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중산돌격운동에 모두는 당의 전무적소마라 자력경제발전에서 산악같이 밀쳐나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심혈마다에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필승의 신심, 비상한 창조적열정과 전무적기개가 맥박치고있다.

5개년전략목표수행 중산돌격운동에 총매진하는 결의모임이 인민경제 중요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연일 진행되고있다.

모임들에서는 보고에 이어 결의토론회가 있었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돌격운동은 전무적인 공격과 최대의 중산이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자기의 힘으로 부흥하는 강국을 일떠세울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갖추는 자력자강의 대전투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 높은 생산성인양과 현대적기술을 일으켜온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 나라의 평화와 교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과 강용한 기상을 만발해 펼쳐달라고 말했다.

중산의 가장 큰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다. 이것을 명실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공정의 주체화,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며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탐구지원하여 청장제를 최대한 중산함으로써 우리 당의 명도업적을 빛내어나간다고 하고 그들은 강조했다.

그들은 주체화 정책을 해오며 들어오고 생산을 정상시키기 위한 전속공격전을 파고히 전개하여 발전적 혁명파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경제강국건설의 전구들에 더 많은 화물자동차들과 대상설비들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산의 열쇠는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이것을 자각하고 일꾼들과 종업원들속에 5개년전략목표를 위한 방도를 정확히 알려주어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열정을 최고무중하는 혁신적정기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했다.

그들은 모든 생산공정을 고도로 현대화하기 위한 기술개선에

생산장비들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며 우리의 원료, 자재로 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했다.

남북친화협력하기요소, 신의 주화합심유망장 종업원들의 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 제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당의 구상과 결심은 전례이로 승리이며 당중앙과 본연일제를 이룬 우리 인민에게는 뭉치 못한 난관, 정면 못할 요새가 없다는 것이 무엇이 확증된 나날이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오늘날의 총돌격에서 승리를 안아오았는 것이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천으로 피사하는 중대한 정치적 사명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중산의 물거품을 남기지 않게끔 모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비효율과 화해적물들을 보내줄데 대하여 강조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성인양을 높이고 중산의 물거품을 남기지 않게끔 모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비효율과 화해적물들을 보내줄데 대하여 강조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성인양을 높이고 중산의 물거품을 남기지 않게끔 모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비효율과 화해적물들을 보내줄데 대하여 강조했다.

당정책결사관철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과학적인 물질관리체계를 철저의 새우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은 세차게 지펴올릴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했다.

그들은 날로 발전하는 인민들의 요구와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세계경제발전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우리의 상봉을 단명제를 명상들이 쏟아져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짜고들어 종업원들의 기술가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생산에서 결미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철저히 확립해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했다.

강서구역 청년농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의 결의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에서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밀쳐나선 농업전선에서 대중전고를 올림으로써 알곡증산

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들은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경제, 간고분류의 혁명정신을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혁신적정기사업과 초경쟁제실동화들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했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농물적인 증가제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농장앞에 제시된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작업방법, 분조별사회주의경쟁열풍을 일으키며 전형작업반, 전형분조를 창조하고 일만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했다.

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중산돌격운동에 총매진함으로써 인민경제전면을 활성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적극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했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

전국적으로 560여개의 단위가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 쟁취

얼마전 조선과학기술총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은 세계적 지평을 넘어서 모든 것이 어둡고 무거운 속에서도 생산성상승의 물음을 높이 울리었다.

남북친화협력하기요소 플리프르비엔전사생산용역에 참가한 인민경제중요기업소들이 중산돌격운동에 힘있게 밀려나가는 기세를 새워나가는 경제발전은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자력경제, 자금자원의 구조를 높이고 과학기술에 철저의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확대시키며 생산성인양과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고르고있다.

이번에 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를 수여받은 단위들에서는 과학기술로 만사를 해결해나가는 확고한 관철과 밀집된

과학기술수준을 무한히 높이고있다.

이 과정에 공에서는 인민의 규격과 가공방식에 맞게 어찌까지 퍼부세공품을 생산할수 있는 장치를 새롭게 제작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수십건의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였으며 퍼부세공의 생산성을 몇배로 높이고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의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였으며 3중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쟁취를 위한 기술혁신경쟁의 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밖에도 송도전철공사로 공장, 평양제약공장, 자강도정보통신국을 비롯한 수십개 단위들에서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연공,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은 세계적 지평을 넘어서 생산과 경영활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성과로 이룩하였다.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전무적열정과 혁신적 열정을 높이 받들고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원료, 자재, 설비의 주체화 실현을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범기술혁신단위 칭호를 수여받은 단위들에서는 과학기술로 만사를 해결해나가는 확고한 관철과 밀집된

9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무연탄에 의한 환원철생산공정 확립 분전강철공장에서

무연탄과 근로자들은 자강력 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강령적으로 창조자로 내세워 주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코나른 믿음에 심장에 새기고 도의 철강제수요를 자재의 힘으로 보장할 목표를 세우고 그 실천에 몰두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켰다.

능력있는 도안의 일꾼들과 헌정회부가 조직되고 환원철생산공정확립을 위한 전투가 한층 크게 벌어졌다. 새로운 환원철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은 당내한 광의 건설공사와 함께 당지론 가스

말성로와 철로를 일떠세우고 수많은 설비들을 제작설치해야 하는 어려운 전투였다.

환원철생산공정의 일꾼들은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보장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으며 노동자들은 분전시의 근로자들과 힘을 합쳐 굴식로와 압연실링 및 건조장, 가스발생로들의 설비장치를 조립과 수검의 관부설공정도 책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밖의 단위들에서는 자동조종체계 확립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부품들을 철저히 보장하였다.

공장의 기술자들과 3대혁명조직원들은 해당 단위의 고원, 연구사,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생산공정 확립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

을 해결하면서 자재실정과 조건에 맞게 공정설계를 완성하였다.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여러 단위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가스발생공정을 보다 완벽하게 조조하였으며 수검자의 운영을 통하여 조분적인 로운 영향범을 획득하였다.

새로운 생산공정이 확립되어 코나른 믿음의 힘으로 강건도에 온한 원료를 이용하여 도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절실히 필요한 철강제품을 마음대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다.

지금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환원철생산공정의 자동화수준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전력생산에 계속 박차를

자강도안의 중소형발전소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를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중소형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재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 수행을 위한 중산돌격운동에 밀쳐나선 자강도안의 중소형발전소들의 노동자들은 전력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의 해당 부문 일꾼들은 발전설비마다 만부하를 견디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중소형발전관리국에서는 중소형발전소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 물관리, 열관리, 수리기술을 높이고있다.

관미국의 일꾼들은 중소형발전소들에 나가 전력생산자들과 실제적도의를 강화하면서 발전설비들의 만기들을 보장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질러가며 풀어나가고있다.

중소형발전소들의 일꾼들과 전력생산자들이 전기생산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회정근민발전소를 비롯한 이곳 근민의 중소형발전소들에서는 물량을 과학적으로 타산하며 기초에서 발전설비들의 무하분배를 합리적으로 하고있다. 그러하여 같은 양의 물을 가지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당의 전무적소마라 중산의 물음을 높이 울려가고 있다. -평양326전선공장에서- 본사기자 최충성 찍음

